

무안 망운면,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찬성 54%

국제공항 위치

전남연구원, 통합이전 여론조사
무안 군민 찬성률 40% '상승세'
일자리 인구 증가·지역발전 기대
"의견수렴 공론의 장 필요" 공감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에 합의하면서 지역 내 찬성 여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한 망운면에서는 찬성 여론이 50%를 넘어섰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시·도민 10명 중 6명이 찬성했다. 또 무안군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공항 이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 수렴 등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남연구원이 지난 11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시민 67.4%, 전남도민 56.1%, 무안군민 40.1%가 광주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올해 들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안군민의 찬성률은 꾸준히 상승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4월 30.6%(광주KBS), 6월 37.9%(세계일보), 10월 37.8%(세계일보), 11월 전남연구원 40.1% 등 찬성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무안군민 10명 중 6명은 공항 통합 이전이 무안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해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를 보여줬다.

무안지역 여론조사는 주민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남성이 48.2%로 여성에 비해 찬성률이 높았고, 19세 이상~30세 이하 청년층(46.8%), 60대(4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읍·면별 찬성률은 공항이 소재한 망운면이 5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현경면 50.8%, 삼향읍 44.3% 순이다. 반면 해례면(26.65)과 몽탄면(32.3%)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음피해 우려가 주된 반대 이유로 나타난 반면, 무안군민들은 광주 민간·군공항의 통합 이전을 통해 일자리·인구 증가(35.7%),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발전(31.4%), 무안국제공항 활성화(19.6%)를 찬성 이유로 꼽았다.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이전과 관련된 현안을 토의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광주시민 79.4%, 전남도민 83.9%, 무안군민 70.6%가 공감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로 광주시민은 공항 접근성 개선(40.8%), 국제선 정기노선 유치 확대(31.9%)를 꼽았다.



HELLO 2024 갑진년 새해를 엿새 앞둔 26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광주 폴리 I 광주시랑방에 HELLO 2024 문구가 설치된 가운데 시민들이 기념 촬영하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또 전남도민은 국제선 정기노선 유치 확대(49.1%), 공항 접근성 개선(31.6%)을, 무안군민은 국제선 정기노선 유치 확대(46.5%), 국내선 유치(13.4%)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겸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로 인해 민간공항이 통합 이전한다는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며 "과장된 소음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

식시키기 위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지면 무안지역 찬성률이 50%대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데 대해 장헌범 기초실장은 "시도민들이 광주 군공항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면 조사를 결정했다"며 "이번 조사로 군·민간공항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을 추가로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560명(무안군 1027명·전남도 1015명·광주시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추출은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라 무작위 추출해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무안군·전남도. ±3.1%p, 광주시 ±4.3%p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시·전남도·나주, 혁신도시 발전기금 첫 공유

나주시, 50억 출연 절차 진행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가 공동혁신도시(나주빛가람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 원을 첫 공유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나주시가

50억원의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공동혁신도시 조성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광주와 나주를 제외한 전남 다른 시군에도 확산시키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은 혁신도시가 출범한 2006년 광주시·전남도·나주시가 체결한 성과 공유 협약을 통해 조성하기로 했지만, 기금 조성 규모·사용 범위 등을 놓고 지자체 간 입장이 엇갈려 관련 절차가 지연됐다.

지난해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 협약이 체결되면서 시·도가 각각의 조례안을 발의, 발전기금 공유의 근거를 최종 마련했다.

사도의 해당 조례안은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금 설치·준속기한, 발전기금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발전기금은 공동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광주와 전남에 55%, 공동혁신도시 내 정주 여건 개선 등 나주 혁신도시 발전에 45% 사용한다. 광주 13억7000만 원·전남 13억7000만 원·나주 22억5000만 원 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주시가 기금 출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발전기금 첫 공유 사례"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